

마쓰오 신사

마쓰오산 정상에 위치한 이 신사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있지만,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카마치의 종교적·문화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.

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신사는 807년에 모시풀(카람시, 도카마치 전통 직물에 사용되는 주요 식물)과 관련된 여신 누나카와히메를 모시기 위해 창건되었다고 합니다. 현재의 본전은 1497년에 건축(이축)된 것으로, 니가타현에서 가장 오래된 초가지붕 목조건축물 중 하나입니다. 1978년에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고, 2019년에는 지붕 전체가 교체되었습니다.

눈이 많은 지역에서 이 신사가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건축구조에 있습니다. 초가지붕의 급경사는 눈이 쌓이기보다는 미끄러져 떨어지도록 유도하여, 지붕이 눈의 무게로 내려앉는 것을 방지합니다. 여러 개의 굽은 지주는 눈과 젖은 초가지붕의 무게를 견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마쓰오 신사의 중요한 축제 중 하나는 남자아이의 성장을 기원하기 위한 '나나쓰마이리'라는 의식으로, 매년 5월 8일에 열립니다. 세는 나이로 7살이 된 지역 소년들이 산기슭의 이누부시 마을에서 해발 360m 산꼭대기의 신사까지 약 3km의 길을 올라 참배를 합니다. 때로는 아직 눈이 남아 있어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힘든 코스지만, 지역 사람들이 총출동해 아이들의 등반을 돕습니다. 신사에서 기도와 의식을 마치면 모두 다시 산을 내려오고, 가족들은 소년을 축하하는 잔치를 엽니다.

이 신사에 전해 내려오는 2가지 중요한 유물은 16세기 이 지역을 다스렸던 강력한 다이묘 우에스기 겐신(1530~1578)이 신사의 수호신에게 바쳤다고 전해지는 검과 군바이(전투 때 장수가 지휘하기 위해 사용한 부채)입니다. 보안상의 이유로 신사에는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, 복제품이 '마쓰다이 향토자료관'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